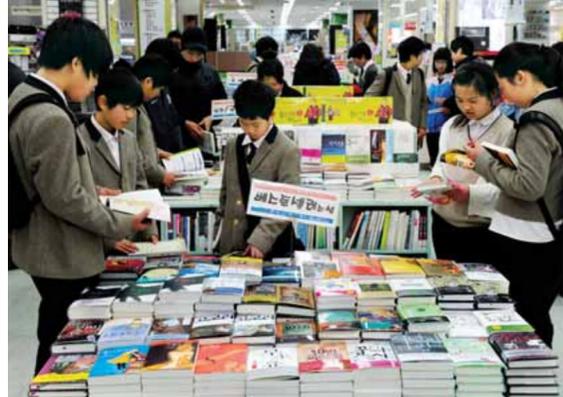


소비자 부담만 가중 **도서정가제** '단통법'과 뭐가 다른가

21일 시행 앞두고 각계 반응 엇갈려

참고서 등 할인폭 15% 제한... 18개월 지난 책도 중소 출판사·지역 서점 지원 취지 살릴지도 의문



21일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와 서점, 출판사 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학생들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도서정가제 전면 도입 후 달라지는 점

구분	현행	개정이후
대상범위	모든 도서(실용서, 초등학습서 제외)	모든 도서(실용서, 초등학습서 포함)
적용기간	18개월 이내 간행물(신간)	18개월 이내 및 경과 간행물
할인범위	정가의 10% 가격할인+판매10%(간접할인)	가격·간접할인 포함해 정가 15% 이내 (가격할인 단독으로 10% 이내)
적용의 예외	도서관·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은 사라지고 책값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행령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소비

자 입장에서는 특히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당장 새학기부터 참고서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으로서 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다.

<출판·서점계 "실효성 의문"

당초 도서정가제는 슈퍼 '갑'인 대형 온라인 서점과 대형 출판사 사이에서 고사 위기에 직면한 중소 출판사와 지역서점을 위해서 도입됐다. 강자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는 약자들의 생존을 지원하는 산업생태계 복원이 초점이다. 그러나 과연 도서정가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출판과 서점 업계의 바람을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지역에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송광룡 문학 대표는 "과거에는 신간에 한해 10% 할인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15%까지 가능해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운영하는 대형서점의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대표는 "장기적 안목으로 소비자, 출판사, 서점이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한다"며 "향후 도서정가제 정착으로 콘텐트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소비자 부담 최소화

문체부는 책값 인상에 대한 소비자 우려 불식에 최선의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김희복 문체부 1차관은 5일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 "업계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를 깨는 행위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부처 차원의 점검반 편성을 통해 엄중감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 안에 ▲시간 기준도서를 중고간행물에서 제외 ▲간행물 판매사 범위에 판매증가(오픈마켓) 명시 등 요구사항들을 반영했으며, 정가제 위반사 관태료를 1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6개월 후 추가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위반 건수마다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



서울발레단, 30일 광주문예회관 공연

'발레로 만나는 피노키오.'

제페트 할아버지와 나무로 만든 말쑥쟁이 피노키오가 등장하는 동화 '피노키오'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아온 동화다.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가 1883년에 발표한 '피노키오'는 공부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하고 고양이와 여우의 꾀에 쉽게 빠져 버리는 피노키오의 풍성한 모험담이 담긴 유쾌한 작품이다.

서울발레단이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발레로 풀어낸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 발레-피노키오'를 공연한다. 30일 오전 11시·오후 3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서울발레단은 박재근발레단에서 출발한 민간발레단으로 지난 2000년 이름을 바꾼 후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한국 초연으로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발레 '카르멘'과 '이브케니 오네긴'을 무대에 올렸으며 지금까지 세계 30개국에서 약 500회 공연을 진행했다.

특히 서울발레단은 고전적인 레퍼토리 뿐 아니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발레로 재해석, 색다른 무대를 만들어왔다. 지난 2007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게임을 소재로 제작한 '리니지-메르헨'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피노키오'는 지난 2010년 서울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초연된 후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친 작품이다.

'피노키오'는 연극적 요소가 가미된 발레로 30여명의 출연진과 함께 화려한 무대 세트가 눈에 띈다. 특히 차이코프스키 콘서바토리아에서 수학한 노다르 찬바 상명대 교수가 작곡과 음악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가격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면 R석을 2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62-523-03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기금 2016년 142억 목표

대표이사 비전 발표, 아리랑축전 등 대형 위탁사업 재검토



광주문화재단이 광주세계아리랑축전 등 대형 위탁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책 연구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또 문화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전국문화재단 중 최하위 수준인 기금 확보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운영한다.

광주문화재단 서영진 대표이사는 5일 재단 회의실에서 '취임 1개월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영비전 및 정책방향, 조직 및 사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서 대표이사는 이날 ▲정책 연구 중심으로 핵심기능 전환 ▲재단 정체성 확립 및 기금 확보 ▲직원 화합 및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운영계획의 핵심은 정책 연구 중심으로서의 재단 기능 전환이다. 재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고 정착되는 2030년까지의 광주문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광주문화정책 중장기 로드맵

2030'은 지역 문화예술인, 원로,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내년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아시아문화포럼, 아시아문화예술교류사업의 이관을 검토하고 미디어아트페스티벌, 광주세계아리랑축전, 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 등은 논의를 통해 조정, 시행할 계획이다. 위탁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문화재단만이 시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선도 프로젝트는 지속 발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조직도 일부 개편한다. 기금조성을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전담인력도 배치한다. 또 '광주시-문화예술계-재단' 간 '3각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다각적인 기금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재단은 현재 86억원 규모인 기금을 내년에는 102억원, 2016년에는 142억원으로 늘리는 등 오는 2023년까지 설립 당시 목표액인 500억원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예술기부 활성화 캠페인' '기업메세나 지원사업 운영' '기업메세나 프로젝트 운영' '시민메세나 프로젝트 운영'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이 재단의 목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용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IPALG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